

한-미FTA 저지를 위한 한농연 제2차 총궐기대회를 맞이하며

서울집중 투쟁 왜 지금인가?

오는 6월 2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농연 단독으로 주최하는 집회가 오래간만에 개최된다. 한창 농번기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기에 개최되는 상경 투쟁이라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오는 6월 30일 망국적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양국 대통령이 만나 서명을 할 예정이며 그렇게 된다면 정부차원의 협상 절차는 모두 종료되는 것이다.

농민들의 투쟁은 노동자 투쟁과는 달리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생명을 다루는 생명농업의 파수꾼들의 마음속엔 의사들의 생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본능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집회를 하다가도 가족의 생리주기에 맞춰 잠시 집회장소를 비우기도 해야 하며 시기적으로 아예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손실, 작은 이익을 위해 뒷걸음질 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일상적 영농활동이 무의미해질 정도의 큰 흐름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도 농업분야는 얻을 것 없이 내어주어야 하는 한-미 FTA 절차가 정부차원에서는 마무리 된다.

그동안 농사일에 매달리느라 가라앉았던 한-미 FTA 반대 투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이후 국회비준 투쟁부터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동력을 만들기 위해 6월 20일은 조직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후 기나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반대투쟁은 지역 단위, 광역 단위 연대투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하며 그 첫 신호탄은 이번 6월 20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어떠한 기조로 투쟁할 것인가?

이번 한-미 FTA 저지 한농연 제2차 총궐기투쟁은 두 가지 기조를 가지지고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는 두말 할 나위도 없이 한-미 FTA 원천무효를 위한 저지 투쟁으로서 광우병 쇠고기, GMO(유전자조작)농산물 등 국민들의 건강,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부각시켜 대국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볼거리와 관심사항들이 집회를 통해 언론에 비춰지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그 내용을 본다면 이번 총궐기대회와 성과는 실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첫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분위기를 기존집회와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에 있다.

그동안 농민집회에 대한 언론의 시각이나 국민의 인식은 집회의 본질과 내용보다는 집회방식과 자극적 볼거리 위주의 비뚤어진 보도행태를 보여 왔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은 집회에 대해 묻지마식의 다분히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거부반응을 보여 왔다. 아무리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집회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와 관행을 깨지 않는 한 언론의 보도 방향이나 국민의 인식 변화라는 집회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들이 집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집회의 긍정적 측면과 밝은 면을 보여 줌으로써 기존집회와 다른 집회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우리 한 농연이 만들어 내는 시범대로서 이번 총궐기대회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집행부에서는 집회시작부터 끝까지 질서유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집회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각 시도 연합회별로 100명씩 자체 질서유지인을 조직하여 거리행진과 장내 정리 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나는 이번 총궐기대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번 총궐기대회의 핵심은 거리행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리행진시 서울시민과 함께 집회를 만들어가고 국민의 호응과 감동을 유도하여 한-미 FTA 반대 투쟁이 전 국민의 대중운동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농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미 FTA 저지투쟁의 전도사가 되어 거리행진시 서울시

민과 함께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모아 나가야 한다.

먼저 우리 농산물을 매개로 한-미 FTA 반대 메시지를 전달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내가 직접 재배하는 농산물을 한두개 준비하여 한-미 FTA 반대 스티커나 리본 등을 부착하여 서울시민에게 나눠준다면 서울시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농민집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기존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전 협상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미 FTA의 4대 독소조항(랫치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 투자자국가중재, 네거티브방식)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물을 제작하여 가지고 온다면 수천여개의 홍보물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집회 참가자 개인이 이번 집회의 주체이며 주인공으로서 한-미 FTA 반대 투쟁의 전도사로서 조직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한농연은 이번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농연 제2차 총궐기대회'를 통해 조직 내·외부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용어 해설

랫치조항

한번 개방하면 역행이 안되는 역진방지시스템

미래의 최혜국대우

향후 우리나라가 특정분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미국에게 그 혜택이 자동적으로 부여

투자자국가중재

미국 투자자에게 우리 정부와 똑같은 법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네거티브방식

협상내용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자동적으로 완전 개방